



학회장: Hyeyoung Lim
(임혜영)

Dept. of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Alabama
Birmingham, AL 35294
hyeyoung@uab.edu

부학회장: Kyung-Shick Choi
(최경식)
Cybercrime & Cybersecurity
Boston University
Boston, MA 02215
kuung@bu.edu

총무: Hyesun Kim
(김혜선)
Dept. Criminal Justice
Worcester State University
Worcester, MA 01602
hkim3@worchester.edu

회계: Chunrye Kim
(김춘례)
Dept. of Sociology & Criminal Justice
Saint Joseph's University
Philadelphia, PA 19131
ckim@sju.edu

뉴스레터 편집장: Heeuk D. Lee
(이희욱)
Dept. of Criminal Justice
Weber State University, UT
84408
heeuklee@weber.edu

Inside this Issue:

학회장 인사말	1
학술분과 보고	4
10월 공동학술대	13
GACP 취재	16
학술상 수상자 인터뷰	19
1st year PhD Tips	21
특별기획	25
학교소개	28
회원소식	31
공지사항	33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 소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Editor's Summary / 학회장 인사말

Editor's Summary

- KOSCA Organizational Chart
- 학술분과 보고
- KOSCA 학생분과
- 2021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보고
- 10월 공동학술대회
- GACP 취재
- 학술상 수상자 인터뷰
- 1st year PhD Student Tips
- 특별기획 [1]: Interview with Dr. Wesley G. Skogan
- 학교소개: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 공지사항

학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원 여러분,

제7대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장 임혜영입니다.

임인년 한 해, 학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정기총회에서 열린 학회활동을 하겠다는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열린 학회란, 학자들과 시민, 실무가가 서로의 지식, 경험, 전문성을 존중하며 배워나갈 수 있고, 상부상조하고, 조화를 이루어 시민보호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는 학회를 의미합니다. 학자들의 모임인 재미한인범죄학회가, 학자들의 지식이 필요하고 활용될 수 있는 재미동포들과, 형사사법분야 종사하고 계시는 한인실무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운영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회장 임기 동안 아래의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자매결연 학회/기관들과 상호 협조와 활동을 재정비하고, 공동학회/세미나/워크샵 등을 열어 지식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형사사법분야 실무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장 지식을 배울 수 있고, 학자와 실무가의 협업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인 실무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인학자와 실무가가 상호 협조/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재미한인범죄학자와 재미한인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학자들이 한인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지식 기부를 할 수 있고,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고, 새로운 연구 방향의 지표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d on page 2)



학회장 인사말

넷째, 학술분과활동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추경석 전 학회장님 산하에서 재정비된 다섯 개의 학술분과들이 체계를 갖추고, 각 분과장을 주축으로 분과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분과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내 형사사법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학회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저와 함께 학회를 운영하기 위해 자원해 주신, 제7대 임원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항상 학회에 함께 해 주고 계시는 학회원분들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학회원 한 분 한 분의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저희 학회의 국내외 인지도와 위상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단체들과 학회들에서 협업을 요청해 오고 있으며, 저희 학회의 활동과 여러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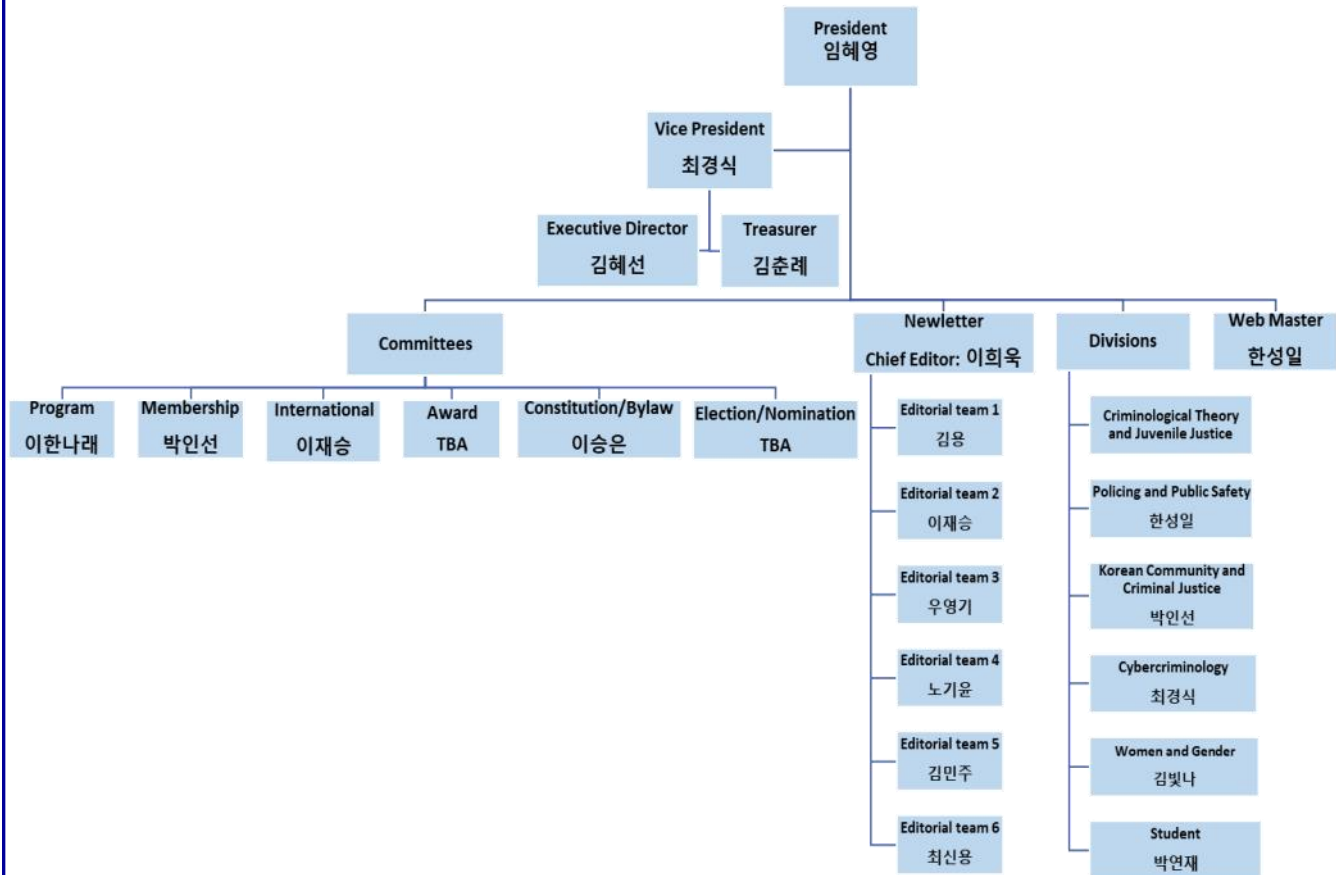
팬데믹 상황에서도, 추경석 전학회장의 리더십 아래, 저희 학회는 많은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이를 발판으로 올 임인년에도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열심히 학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회원 여러분들과 가정 내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제7대 학회장
임혜영 배상

KOSCA Organizational Chart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Organizational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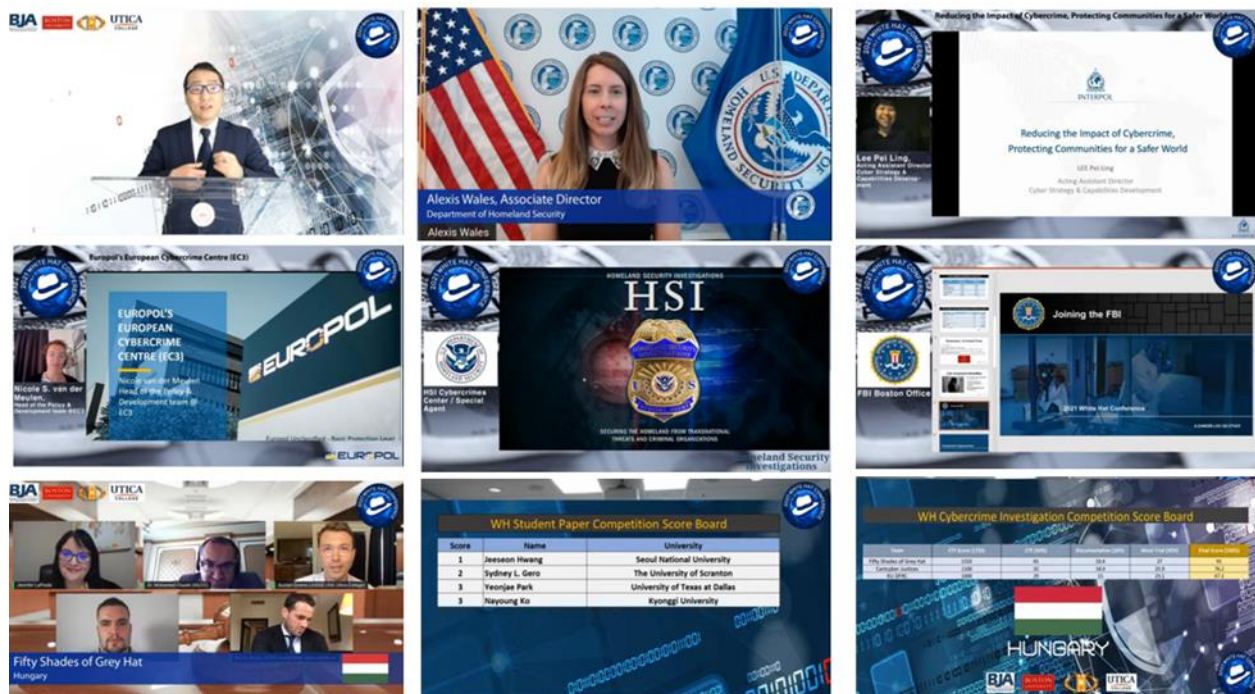


학술분과 보고

Division of Cybercriminology

그동안 사이버범죄학 학술분과위원장 및 회원들은 형사사법분야에서 사이버범죄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문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1년에도 다양한 행사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같은 활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이버범죄학 학술분과위원회의 좌장을 맡고 있는 최경식 교수는 2021년에도 여러 학술대회, 포럼, 및 세미나 (AMERIPOL Law Enforcement Training: Cybercrime Essential; SECREV2021, Cybersecurity Revolution; 2021 International White Hat Conference; Doctorado en Ingenieria at Francisco José de Caldas District University in Bogotá, Colombia; The 11th International Annual Forum of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ed by Manon Maniam Sundaranar University, Parul Institute of Law, Parul University, and Indian Society of Criminology) 등에 기조연설자로 초대받아 최신 사이버범죄의 트렌드와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알리는 것에 이바지했다.



최경식 위원장과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2021년 6월에 제 2회 화이트햇 컨퍼런스(White Hat Conference)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능력의 향상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사이버범죄의 미래와 도전: 혁신적인 대응방안"이란 대주제 아래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및 민간 기업들이 참석하여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다양한 시사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의 FBI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비롯 Interpol과 Europol의 사이버 수사실무기관 등의 참

(Continued on page 5)

학술분과 보고

여는 최근 각 기관별 사이버 보안 침해사고와 사이버 수사의 기법 그리고 대응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나아가 행사에 참석한 차세대 사이버 수사요원 및 교육 일선의 관계자들이 사이버 수사 관련 교육훈련 시 참고할 만한 중요한 교육훈련의 목표(learning objectives)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평가된다. 행사 양일간 전 세계에서 모인 15개국의 사이버 수사요원, 사이버 보안전문가, 학생 등 1,400여 명의 인원이 대거 참석해 사이버범죄와수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자리였다. Day 1에는 '사이버 수사 경연(The CyberCrime Investigation Competition)', Day 2에는 사이버 수사 경연에서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증언하는 '모의재판(Mock Trial)'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와 관련 주목할 것은, 미국 법무부(The U.S. Department of Justice)의 Bureau of Justice Assistance에서 수여한 그랜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Boston University와 Utica College 가 공동 주최하여 진행하였다.

컨퍼런스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ay 1: <https://www.youtube.com/watch?v=YDYA1xjXrlw>

Day 2: <https://www.youtube.com/watch?v=q-bxLCrmnsg>

본 학술분과의 회원이자 최근 미국 범죄학회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ASC]) 의 사이버범죄 분과 (Division of Cybercrime)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The University of Scranton의 백신철 교수는 최근 펜실베니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Cyber Investigation Summer Camp를 운영하고 차세대 사이버 수사요원 양성에 노력을경주했다. 백신철 교수는 '위와 같은 Boot camp 형식의 교육은 지역 청소년들이 사이버 수사 훈련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사이버 보안의식을 제고하는 등 사이버범죄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고취시켜 심각 한 수준의 사이버 수사요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Camp 기간동안 최경식 위원장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사이버 수사"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는 등 분과 회원이 주최한 행사를 적극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1월에 개최된 ASC's Cybercrime Division으로부터 최경식 위원장은 우수 공로상 (Outstanding Contribution Award)을 수여했으며, 12월에는 중남미 5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안데스 의회 (Andean Parliament)에서 국제 사이버 보안 강화 프레임워크 구축 공헌 표창을 받는 등 KOSCA의 Division of Cybercriminology의 위상을 더 높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주시는 모든 KOSCA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와 함께 사이버범죄의 연구, 행사, 기타 등등 다양한 논의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학술분과위원장 최경식 교수 (kuung@bu.edu) 혹은 멤버십 관리위원 이한나래 교수 (h2lee@bridgew.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inued on page 6)

학술분과 보고

Division of Police and Public Safety

Policing and Public Safety 분과에서는 지난해 분과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 저널의 Special Issue 에 참여하여 논문을 출간하였으며, ASC Annual conference 중 Round Table 미팅을 통해 COVID-19 팬데믹 에서의 경찰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진행하였던 COVID-19 관련 연구들을 공유하고 올해 진행할 공동 프로젝트를 발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과장이셨던 백현인 교수님께서 지난 2년간의 분과장 임기를 마치시고 한성일 교수가 새로이 분과를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Policing and Public Safety 분과에서는 경찰과 치안 관련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KOSCA 회원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발한 연구 참여 및 학술교류를 원하시는 KOSCA회원분들은 한성일 교수 (shan27@uncc.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ivision of Women and Gender

Women & Gender Division (WGD)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해 다양한 주제의 webinar를 개최함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10월 23일 (토)에는 회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학회 스타일로 발표 후 피드백을 듣는 Zoom Meeting을 가졌습니다. 2022년 첫 모임으로 1월 15일 (토)에는 다양한 Secondary Data를 소개하고, 출판 연구를 위한 활용방안에 관한 강좌를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함께 모임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고 WGD에 관심 있는 분들은 Chair (김빛나, bitna.kim@iup.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Division of Korean Community and Criminal Justice.

저희 분과는 11월 시카고에서 열린 ASC 에서 Building Racial Justice for Asian Immigrants in the U.S.: History, Milestones, and Setbacks 라는 주제의 Roundtable 에 참여했습니다. 총 6명의 패널리스트가 참가하였으며, 손지선 교수 (Tarleton State University) 와 박인선 교수 (University of Akron) 가 Victimization of Asian Immigrants in the U.S. d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추태명 교수 (University of North Georgia) 가 조지아 한인 범죄 예방 협회 (Georgia Advocates for Crime Prevention) 연례 갈라에 참석하였습니다. 미국 내 거주 한인 그리고 아시안들의 안전을 위한 학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분들은 ipark@uakron.edu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Division of Criminological Theory and Juvenile justice

If interested in joining this Division, please contact 백현인교수, h0baek01@nmsu.edu.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보고

편집부: 최신용

재미한인범죄학회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제76회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ASC) 학회 기간 동안 정기총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 및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회원분들과 귀빈들의 참석과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모임을 마쳤습니다. 아래는 금번 KOSCA 정기모임 및 학회 행사들에 관한 보고사항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2021 KOSCA Annual Meeting

1. 학회 정기모임

학회의 주요 행사인 학회 정기모임이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에 Palmer House Hilton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 6대 학회장님(추경석)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여러 단체 및 귀빈 소개, 제7대 학회장(임혜영)/부회장(최경식) 취임식, 업무/활동 보고, 및 공로상 수상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2021 KOSCA Annual Meeting

(Continued on page 8)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보고

특히, Georgia Advocates for Crime Prevention (GACP) 및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소개하는 자리는 해당 단체들과 KOSCA 사이의 범죄예방 및 연구 측면에서 상호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Division of International Criminology



Georgia Advocates for Crime Prevention (GACP)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Division of Cybercriminology

임원단 업무보고 및 각 분과별 활동보고 후 감사패 수여 및 논문상 시상식을 가졌고, 올해에는 지난 한 해 부회장으로 수고해주신 임혜영 교수님께 감사패가 수여되었고, 신임교수 연구 우수상 수상자는 이승은 교수님이 선정되었습니다. 2020-2021년 동안 KOSCA를 이끌어 주신 추경석 회장님에 이어 2022-2023년 학회를 새로이 이끌어 나갈 임혜영 회장님과 최경식 부회장님의 취임식이 있었고, 전/현부회장님의 이/취임식 인사말을 끝으로 2021년 KOSCA 연례 정기모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Continued on page 9)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보고



Dr. Hyeyoung Lim (left) & Dr. Kyung-Seok Choo (right)



Dr. Kyung-Shick Choi



Dr. Kyung-Shick Choi (left) & Dr. Claire Lee (right)

(Continued on page 10)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보고

2. KOSCA 패널 세션

2021년 ASC에서는 KOSCA가 주축이 되어 총 두 개의 패널 세션과 한 개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패널 세션에서는 Online Sexual Exploitations against Minors 및 Stop Asian Hate: Conceptualization, Social Responses, and Prevention 주제로 흥미로운 연구 내용들이 발표되었으며, 라운드 테이블 세션에서는 Policing Practice in response to Hate Crime against Asian American 주제로 다양한 연구 발표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학회원분들이 다수의 세션에서 다양한 연구주제 발표 및 학생분과위원회 모임 등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1년 KOSCA 정기모임은 힘든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학회원님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동체의 헌신과 활동을 이어나가려는 노력들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내년 정기모임에서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들로 더 많은 학회원님들을 뵙길 기대하며, 끝으로 코로나19 대유행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기보고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OSCA Student Division 학생분과

박연재

이번 12권 1호에서는 2021년 11월 Chicago에서 열린 ASC 학회에서 가진 KOSCA 학생분과 정기모임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학생분과 회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주고받는 자리는 COVID-19 사태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학생분과 회원들 모두 대학원 입학 후 처음으로 학회에 참석한 것인 만큼 이번 학생분과 모임은 설렘과 새로움, 그리고 반가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2021 KOSCA Student Division Meeting



↑ 2021 KOSCA Student Division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분과는 신규 회원들을 환영하는 Lunch Mixer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다른 지역에 있지만 COVID-19로 수업이나 연구실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범죄학을 공부한다는 공통점이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어로 이러한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분과 모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임혜영 KOSCA 회장님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과 Baylor University의 장성준 교수님, Northern Kentucky University의 이재승 교수님, 그리고 University of Louisiana at Lafayette의 한성일 교수님께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장소를 옮겨 진행된 교수님들과의 미팅은 1:2 멘토링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회장에서 벗어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구 방법과 강의법, 제한적인 연구 자원을 외국인 학생으로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 Job market에 나가기 전에 갖춰야 할 것 등 연구 초심자들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조언들을 KOSCA의 학생분과 회원들에게 강의 또는 워크샵 형태로 전달하여, 회원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학계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에서 학생분과 회원들에 대한 교수님들의 애정과 응원이 느껴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Continued on page 12)

KOSCA Student Division 학생분과

학생분과 정기모임에 열린 마음으로 흔쾌히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정기모임 보고를 마치며 학생분과 위원장이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의 박연재 박사과정생으로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3월 Las Vegas에서 열리는 ACJS에서 진행될 일곱 번째 정기모임에서 안건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혹은 워크숍으로 배워보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박연재 (Yeonjae.Park@utdallas.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위원장 한성일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학생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생분과 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공동학술대회

편집부: 이재승

2021 한국-미국 범죄 및 형사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지난 10월 21일(한국 시간 10월 22일)에 우리 재미한인범죄학회는 한국의 3개 범죄 및 형사사법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 경찰 연구학회, 한국 셉테드학회)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범죄와 형사사법시스템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범죄 양상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도출하고, 미국과 한국의 형사정책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University of Scranton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신 재미범죄학회 총무이사 백신철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재미한인범죄학회 추경석 회장님의 개회사와 한국 학회의 회장님들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총 20분의 교수님 및 연구자분들께서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셨으며, Northern Kentucky University에서 조교수로 재직중이신 재미범죄학회 대회협력위원장이신 이재승 교수님



의 폐회사를 끝으로 총 4시간의 공동학술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Hate Crime during Post Covid-19'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총 3 팀의 발표와 2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세션은 동국대학교의 조윤오 교수님께서 진행자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조제성 박사(한국 형사범무정책 연구원)님과 김다운 교수(상지대학교)님께서 '코로나 이전-이후 혐오범죄 변화와 혐오범죄 폭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란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배정환 박사(University of South Florida)가 '코로나 시대, 미국의 아시아인 혐오 및 증오범죄 이론적 논의'란 주제로

(Continued on page 14)

10월 공동학술대회

발표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한나래 교수(Bridgewater State University)님께서 '아시아 혐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피해 연구'란 주제로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계명대학교의 김중곤 교수님과 Salve Regina University의 노명훈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하시어 깊이 있는 질문과 제안으로 첫 번째 세션을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CJ System during Post Covid-19'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총 2 팀의 발표와 2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세션은 경기대학교의 황의갑 교수님께서 진행자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김학경 교수(성신여대)님께서 'Facilitating Peaceful Protests: Cross-cultural learning from experiences of dialogue policing in Korea'란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승 교수(Northern Kentucky University)님과 최경식 교수(Boston University)님께서 'Community policing during Covid-19 Pandemic: Transition to cyber space'란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목원대학교의 박선영 교수님과 치안정책연구소의 오경석 연구관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하시어 깊이 있는 질문과 제안으로 두 번째 세션을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Crime Prevention during Post Covid-19'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총 3 팀의 발표와 2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세션은 치안정책연구소의 박재풍 연구관님께서 진행자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김진욱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님과 이도선 교수(한남대학교)님께서 '셧다운 인증제도의 소개 및 성과분석'이란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김도우 교수(경남대학교)님께서 '코로나 19 이후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이란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김석범 교수(Utica College)님께서 'CPTED and Fear of Crime'이란 주제로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동서울대학교의 성기용 교수님과 경찰대학교의 이동희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하시어 깊이 있는 질문과 제안으로 세 번째 세션을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GACP 취재

편집부: 최신용

조지아한인범죄예방위원회(GACP) 학술 행사에 임혜영 교수 “증오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주제로 강연
[GACP 인터뷰] 이초원 이사, 조지아한인범죄예방위원회



2021년 12월 5일에 들루스(GA)에서 개최된 제3회 범죄 예방 학술 발표 및 디너 갈라 행사에 이번 7대 재미한인 범죄학 회장으로 임명된 임혜영 교수와 전 회장 추태명 교수가 재미한인범죄학회(이하 KOSCA)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조지아한인범죄예방위원회(이하 GACP) 주최로 열린 행사로 애틀랜타 총영사, 조지아 수사 국장, 조지아북부연방지검장 대행, 조지아 보험부 장관, 카운티 검찰청장(DA)등 조지아 각 도시 및 카운티 법집행 관들, 그리고 다수의 한인 인사들이 참석했다.



(Continued on page 16)

GACP 취재

이날 행사에서 임혜영 교수는 "증오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에 임 교수는 증오범죄의 현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고, 증오범죄의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증오범죄 신고 필요성, 법집행관들의 능동적인 신고 접수 및 해결을 위한 노력, 정부 지원 등을 강조하였다. 강의 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커트 얼스킨 조지아북부연방지검장대행, 브라이언 로톤 존 레이 대학 형사사법학과 교수, 팻시 오스틴-갯슨 귀넷카운티 검찰청장(DA), LA총영사관 이용욱 경찰영사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많은 매스컴에서 보도됐고, 아래의 주소를 통해 재시청 가능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WB41ZoWq3Kg>



최근 KOSCA와 GACP는 한인범죄예방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MOU 체결 및 추태명 교수, 임혜영 교수, 박인선 교수 자문위원 위촉 등을 추진하였다. GACP와 상호협력을 통한 다양한 활동 및 성과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금번 호에서는 학회원들에게 GACP를 소개하는 취지로 해당 단체와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GACP 이사인 Clayton Lee와의 서면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 GACP 소개 및 설립 배경은?

GACP는 12월18일 2019년 정식 비영리 단체로 등록 및 활동을 시작하였고, 설립 목적은 범죄예방 활동, 범죄 근절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밝고 안전한 교민 사회 만들기에 일조 및 한인/아시아인 커뮤니티와 지역 법집행기관 간 상시 교류활동을 통한 상호 원활하고 유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이다.

주 활동 내용은 지역 법집행기관 간 상호 이해 증진, 교민대상 survey 및 research 등을 통해 법집행기관들의

(Continued on page 17)

GACP 취재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지원, 민관 합동 안전 세미나 개최, 기관 견학을 통한 이해 증진, 법집행 기관 간 핫라인 구축, 정기 간담회 (연말연시 감사 리셉션 포함) 개최 등으로 네트워크망 형성, 차세대 양성을 통한 단체의 지속발전 도모, 한인경찰, 검사, 판사 참여 유도 및 법집행기관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이 있다.

GACP설립 배경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늘어나는 한인/아시안 사회 속에 몇 명의 한인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해오다가 점차 조직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이 활동에 관심 있는 한인들을 섭외하여, 조지아한인범죄예방위원회를 설립 하게 되었다.

창립이사로 중심 역할을 한 강형철 경찰 영사, 추태명 범죄학 교수 외 다섯 분이 활동의 뜻을 같이 하였고, 현재 운영이사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인사로는 김영수, 박남권, 박형권, 이초원 등이 있고, 자문 이사로는 추태명 교수, 임혜영 교수, 박인선 교수, 조우형(경찰영사), 강형철(한국경찰과장), Vic Reynolds (GBI-Director), Ronda Leary (State Court Judge), Tracie Cason (Superior Court Judge) 맡고 있다. 그 외 함께할 이사분 등을 계속 섭외 중이고 회원 영입도 계획 중이다.

- 주요 미션 및 활동은?

주요 활동으로 지속적인 범죄예방 세미나, 총기 안전 교육, 여성 자가 방어 훈련, 아시안 혐오범죄 예방 세미나 및 법기관에 처벌 강화 및 보호 대책 촉구, 정보 전달, GBI 국, Sheriff 국 & 법기관 견학, "Coffee with a Cop" 행사를 통해 각 경찰국 및 Sheriff국과 친밀 관계 유지와 정보교환, 범죄학 교수와 합동 학술회 및 토론회 주최, 연 Award 갈라를 통해 협조한 법기관에 감사패 증정과 한인 경찰에게 "Hero's Award" 수여 및 격려 등이 있다. COVID-19 Pandemic상황에 마스크 & 손세정제를 기부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함께 극복해 가자는 취지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해왔다.

- 주요 업적 및 성과는?

2021년 Award Gala & Lecture 행사에 재미한인범죄학회와 MOU 체결을 함으로써 범죄예방의 교육과 연구에 함께 동참하고 그 결과를 지역 사회에 전달 및 공유 효과 기대.

2021년 Asian Hate Crime 예방과 방어 차원에서 "Coffee With a Cop" program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각 지역 시 & 카운티 경찰국 및 세리프 국과 총 12번의 행사를 통해 친밀관계 유지 및 정보전달과 안전보호 요청 등의 효과 기대.

2020년도COVID-19 Pandemic상황에 마스크 & 손세정제등을 Public First Responder에 기부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함께 극복해 가며 지역 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위원회와 한인의 위상을 세움. 2020년 COVID-19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한인 경찰들에게 "Hero's Award" 상을 주며 격려와 감사를 전달.

2021년말 Award Gala 행사에 조지아 주지사의 축하 편지, Kurt Erskine, U.S. Attorney-Northern District Court, Vic Reynolds, GBI-Director, 박영준-대한민국 총영사 아틀란타, State Court Judge, Superior Court Judges, 조지아

(Continued on page 18)

GACP 취재

보험/화재 국장, 조지아 농수산부 국장, 검사장, 검사, 각 시 & 카운티 경찰 서장과 경찰, 세리프 국장들과 세리프 들 포함 80여명과 40여명의 지역 사회 봉사자들이 참가하는 행사로 발전함으로써 2년 만에 놀라운 화제의 대상 이 됨.

- GACP에서 범죄 예방의 날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 현황과 배경이 궁금하다.

우선 조지아주에 한인/아시아 범죄 예방의 날을 12월 18일로 정하고 주정부와 추진 승인을 위해 노력 중이다. "Prevention is the best medicine"란 속어가 있듯이 범죄도 예방에 집중한다면 그 효과를 최대한 가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위원회로 노력 하겠다.

- 재미한인범죄학회와 MOU 체결을 통한 협력에 있어서 기대되는 점은?

2021년 Award Gala & Lecture 행사에 재미한인범죄학회와 MOU 체결 함으로써 범죄예방의 교육과 연구에 함 께 동참하고 그 결과를 지역 사회에 전달 공유하는 효과 기대. 위원회의 활동의 질 상승 및 활동 범위를 지도 받 는 면에서 기대를 한다.

- 향후 발전 방향 및 활동 계획은?

연방, 주, 카운티, 시 등 법 기관과 친밀 유대 관계 지속을 위한 행사에 집중.

범죄예방 세미나 지속.

"Coffee with a Cop" 행사 지속, 2022년도 미 전국에 조지아한인범죄예방위원회 지사 설립 혹은 유사 활동기관 과 MOU 체결 활동 및 know-how를 전수.

미 정부의 범죄예방을 위한 grant program신청을 통한 활동 및 연구 성과 극대화.

학술상 수상자 인터뷰: 이승은 교수님

편집부: 우영기

**1. 먼저 학술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 KOSCA Junior Faculty Research Award (학술상)를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늘 스스로를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에 입문한지 얼마 안 된 '신진학자'로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 유관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연구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에 정진하겠습니다.

2. 주요 관심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주요 연구분야는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 보안, 소셜미디어 연구입니다. 주로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 및 일탈, 보호 행동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나 진행중인 연구를 소개해 주신다면?

2021년 가을 제가 재직중인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의 Digital Humanities Ethics Fellow (2021-2022)로 선정되어 '코로나19 시기 전후 기업 내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주로 진행했던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 수준의 사이버범죄/보안 연구였는데, 기존 연구의 지평을 보다 넓혀 기업, 조직 수준의 사이버 보안 및 범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크 웹의 사이버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및 2021년 애틀란타 총기사건 이후의 미국 내 아시아인 혐오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끝으로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아직 배우고 채워야 할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제가 연구 관련 조언을 해드리기는 조심스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 분께서는 "연구는 결국 끈기와 자신과의 싸움이며 속도보다는 정도(正道)"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제간 연구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린 자세를 가진다면, 연구방법·이론·주제 등에서 간혹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결국에는

(Continued on page 20)

학술상 수상자 인터뷰: 이승은 교수님

'전화위복'으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며 보다 더 풍성한 연구를 해나가는 데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밝아오는 2022년에는 모든 분들께서 건강과 행복이 깃든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st year PhD Student Tips

편집부: 노기윤

이번 호의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호 (11권 1호)에서 다루었던 박사 종합시험에 대한 조언 및 팁에 이어 1년차 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전략 및 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난 후 또는 직장인의 신분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박사과정 1년차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큰 과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박사과정 학생들이 1년차 중 또는 바로 그 직후에 대학원 생활을 그만두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아래 소개해드릴 내용들이 잠재적인 어려움들을 줄일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ASC)에서 발간하는 공식 뉴스레터 The Criminologist 42권 2호의 내용 중에 일부를 참조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학생과 지도교수와의 관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도교수란 차후 박사논문의 지도교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박사과정 1년차에 배정되는 지도교수, 즉 담당교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 대학원 과정의 학위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Beaudin, Emami, Palumbo & Tran, 2016; Li & Seale, 2007). 특히, 1년차



에 참여하게 될 지도교수와의 미팅은 여러분들의 관심 연구분야, 앞으로의 직업 계획, 걱정거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미팅을 기점으로 지도교수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박사과정을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년에 걸친 장기간을 함께할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메일 또는 미팅을 통해서 지도교수와의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도교수가 먼저 연락을 하겠지' 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지도교수에게 연락을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과 솔직함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사적 또는 공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상의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성 (professionalism)을 잃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서로가 배려와 호혜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판에 열린 자세를 가지세요. 자신의 일에 대한 비판은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낳기 위한 기회라 인식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비판을 받았다면, 다음의 세 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즉시 논쟁이나 변명을 만들지 않고 참기; (2) 시간을 들여 비판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기; (3) 비판을 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태도를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기. 건설적인 비판을 위해선 학생들은 열린 자세와 객관적으로 임해야 하며, 비판을 한 사람 역시 솔직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Continued on page 22)

1st year PhD Student Tips

셋째, 지적 독립 (intellectual independence)을 이루세요. 박사과정 1년차동안 여러분들은 스스로 대부분의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전에 대학원 과정의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부분이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홀로 일하기 위해선 근면과 효과적인 시간관리, 독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면, 1년차 동안의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세요. Meer, Jansen, & Trenbeek (2010)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원 과정의 1년차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는 특히나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박사과정 학생들에게는 수강해야 할 수업들, 조교로서의 업무, 학과 또는 개인적인 차원의 해야할 일들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플래너나 캘린더 기능을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학과 선배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 관리는 평생 가져가야 할 능력이며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긴 시간을 들여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맞는 방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세요. 효과적이지 못한 시간 관리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주로 이사를 왔다거나 기존의 네트워크로부터 떨어지게 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점들은 사회적 고립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자 다음의 세 가지를 시도해보세요. 첫째, 동기들과 친분을 쌓으세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동기들 또한 비슷한 고립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점심 약속을 만들어보세요. 여전히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혼자서는 아닐테니까요. 둘째, 적극적인 학과 활동을 해보세요. 대학원생 연합회 (Graduate Student Association)와 같은 학과 단체는 전문적이고 사적이기도 한 관계 형성의 좋은 기회입니다. 학과 내 적극적 활동은 결국 학교 전체에서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는 기회들을 주기도 합니다. 셋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보세요. 편안함이라는 것은 가끔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장소에만 머무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낯설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섯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에 주의하세요. 힘든 대학원 생활이지만,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주어지는 단체 피트니스 수업들이나 교내 스포츠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료 또는 적은 비용의 건강 관리 서비스와 같은 필요한 도움을 학교 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Continued on page 23)

1st year PhD Student T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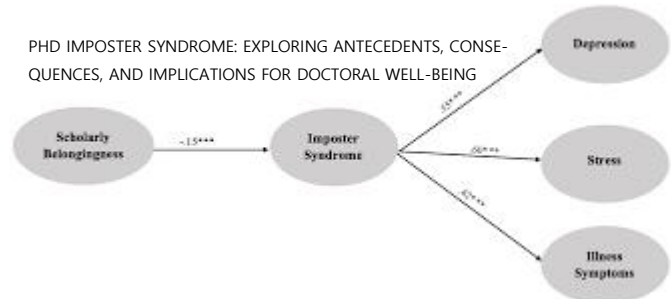
일곱째, 네트워킹을 잊지마세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네트워킹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게는 학과 활동을 통해, 크게는 ASC와 같은 학회를 통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특정인과 연락을 취하고 싶다면, 명함을 주고 받는다던지 학회가 끝난 후 이메일을 보내보세요. 이러한 네트워킹은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의 향상과 멀게는 미래의 공동 작업 등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덟째,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적극적인 태도는 대학원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능력과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보세요. 워크샵, 새로운 연구 방법 기술, 또는 펀딩의 기회들을 알아보세요. 최근 논문들을 통해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데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도해줄 교수들이 있지만, 그 분들도 여러분이 자신만의 주체성을 가지길 기대합니다.

아홉째, 가면 증후군 (Imposter Syndrome)을 관리하세요.

가면 증후군이란 실제 높은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지적이지 않다거나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Gardner, 2016). 가면 증후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선 첫째, 여러분의 가치를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박사과정 프로그램의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이러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자신들에게 극단적으로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이러한 특징들은 더욱 악화되곤 합니다. 때론 우리들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나아지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배움의 경험일 뿐입니다. 셋째, 멘토를 찾으세요. 학계 내 또는 밖의 누구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넷째, 여러분의 자신감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루었던 모든 성취들을 적어보세요. 패배감이 들 때마다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목표들과 현재 왜 학위를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랜 시간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열째, 익숙한 것 (comfort zone)에서 벗어나보세요. 물론 불편하겠지만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특정 주제나, 연구 방법,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편안함을 찾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만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세요. 대학원은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해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Continued on page 24)

1st year PhD Student Tips

이상 1년차 박사과정에 대한 전략과 팁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위해선 비록 초기에 어느 정도의 조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전략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학자로서의 커리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ferences

- Beaudin, A., Emami, E., Palumbo, M., & Tran, S. D. (2016). Quality of supervision: postgraduate dental research trainees' perspectives. *European Journal of Dental Education*, 20(1), 32-38.
- Gardner, M. (2016). Overcoming Impostor Syndrome. *Veterinary Team Brief*, 51-53.
- Li, S., & Seale, C. (2007). Managing Criticism in Ph.D. supervision: a qualitative case study.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2(4), 511-526.
- Meer, J., Jansen, E., & Torenbeek, M. (2010). It's almost a mindset that teachers need to change': first-year students' need to be inducted into time management.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5(7), 777-791.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Wesley G. Skogan

편집부: 이희욱

KOSCA 뉴스레터에서는 Research, Teaching, Service 등에 있어서
각 학교의 저명한 교수님들의 교육철학과 인생철학을 인터뷰를 통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KOSCA 회원으로써 소개해 드리고 싶은 교수님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 편집장 이희욱 교수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욱 교수: heeuklee@weber.edu).

Interview with Dr. Wesley G. Skogan**Dr. Wesley G. Skogan (Professor Emeritus)**

Northwestern University

Education:

Ph.D. Northwestern University (1971)

B.S. Indiana University (1965)

Research Interests: Crime Policy, Politics of Crime, Policing, Conflict Studies, Vic-
timization, Fear of Crime

Biography:

Wesley G. Skogan holds a joint appointment in Northwestern University's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His most recent books on policing are: *Police and Community in Chicago*, and *Community Policing: Can It Work?* Prof. Skogan was co-editor of a policy-oriented report from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Policing: The Evidence*, and he chaired the committee that produced it. Another line of his research includes crime prevention; this led to his book *Coping with Crime*, and a number of articles on community responses to crime. Prof. Skogan has also been involved in research 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the evaluation of service programs for victims. He received the 2015 Distinguished Achievement Award in Evidence-Based Crime Policy from the Center for Evidence-Based Crime Policy. This award is the center's highest honor and recognizes individuals who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and commitment to advance the integration of science with criminal justice practice. This award celebrates CEBCP's core values of doing rigorous science and translating research into practice. The award was presented at the Annual Symposium of the Center for Evidence-Based Crime Policy at George Mason University.



(Continued on page 26)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Wesley G. Skogan**Who has most influenced your work?**

A number of people have influenced my work (Albert Reiss, Ron Clarke, Tom Tyler, Larry Sherman, and Dennis Rosenbaum). I have three main research interests, victimization, neighborhood crime, and policing. Since 1975, I began to research on victimization surveys and was interested in the methodological issues surrounding victimization surveys. Through this interest, I was able to work on various aspects of methodological research and worked with the Bureau of Justice and Statistics on measuring victimization. My interests and research in victimization influenced me to work on neighborhood crime research. Which ultimately led me to my research on policing.

How are you able to publish and receive grants?

I am fortunate to state that I have over 50 years experience in publishing and obtaining grants. During the 50 years, there were times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and private foundations provided more funding opportunity for researchers and scholars. Thus, I was able to secure more funding and able to publish more frequently in the field.

Do you ever get writer's block?

Yes. I had every kind of block. I have worked on publications that did not yield publications. I have had writers block due to issues with implementations and evaluations of several projects that I have worked on. However, this does not stop me from continuing research. I write as much as I can and come back later to complete the paper/project.

How many different research projects do you tend to work on at one time?

It depends. I typically have one large background project that I work on. From this project, there are several smaller projects such as books, research articles, etc. In addition, there are spontaneous projects such as chapters for a book, handbooks, or a book that I tend take on.

Do you have a specific time of the day when you prefer to do research?

All day. I tend to work on completing projects whenever I have time.

How many pages do you tend write per day?

I don't have a solid answer to that. I conduct research and write. This is a continuous process. Setting a set number of pages to write can be more stressful. Thus, I don't have a set of pages that I tend to write at one time.

(Continued on page 27)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Wesley G. Skogan**Are you a generalist?**

I don't consider myself to be a generalist. Prior to researching victimizations, neighborhood crime and the police, I worked on issues in the field of political science. I don't have a background in criminal justice nor criminology. Thus, I tend to focus and specialize in my research interests.

What constitutes a specific research year for you?

The summer. I always try to take off a month or two in the summer to work on my research.

Do you set specific productivity goals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I don't set specific productivity goals. I work on projects until they are done. I don't believe quantity is important. I would indicate the importance of quality. I work on projects that are people care about and importantly what I am interested in. Providing quality research and analysis are very important. I like to focus on the methods component on projects. Focusing on improving the quality of methods will help validate the results.

What would you advise junior faculty and graduate students?

There are two recommendations I would give. Work on topics people care about and work on topics that are important to you. Working on topics that people care about will help with publications and available funding opportunities. Working on topics that are important to you will allow you to work through writers block and continue contributing to the literature.

학교소개: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학교소개: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안녕하세요, 재미한인범죄학회(KOSCA) 회원 여러분! 저는 텍사스 주립대 엘파소 캠퍼스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이하 UTEP)에서 Assistant Professor로 재직중인 전현정입니다. 이번 KOSCA Newsletter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UTEP의 Criminal Justice (CJ)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게 해 주신 편집위원회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글이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UTEP is part of the University of Texas system, and is located in El Paso, Texas, which is situated in a tri-state region at the border of both New Mexico (in the U.S.) and Ciudad Juarez, Chihuahua (in Mexico). UTEP i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successful Hispanic-serving institutions in the country, with a student body that is 83% Latinx. It enrolls nearly 25,000 students in 168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programs in 9 colleges and schools. With more than \$100 million in total annual research expenditures, UTEP is an R1 research university, a designation given to the top 5%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nationally and ranked fifth in Texas for federal research expenditures at public universitie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In 1973, the Criminal Justice degree program was initially administered under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UTEP. By 1978, the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became an independent department, before becoming a part of the Sociology program a few years later. The Department then re-emerged independently in 2012 as the second largest department in the College of Liberal Arts. Our department offers three Master of Science programs. The Master of Science degree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and the Master of Science in Intelligence and Security Studies are both on-campus degrees that offer either a thesis track or professional capstone track. The Master of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 is fully online with no thesis or capstone option. All these degree programs provide students with the intellectual and practical skills that they need to become successful change agents and leaders.

(Continued on page 29)

학교소개: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The CJ department has 17 full-time faculty (including 10 tenure track and tenured faculty and 7 full time lecturers) and 29 part-time adjuncts. They partner with criminal justice and intelligence agencies to conduct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research through grants and contracts. Our nationally recognized faculty teach and conduct scholarly research on a wide range of criminology, criminal justice, and security issues across the U.S. and on the US/Mexico border.

Applying to the Graduate School

All three programs in CJ admit qualified students twice a year (Fall and Spring). Requirements for admission for each program follows:

-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MS-thesis/non-thesis): BA or BS degree in criminal justice, criminology, or a related field (minimum of 3.0 GPA in the last 60 hours of upper-division (junior and senior level) undergraduate classes), statement of purpose, resume, and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TOFEL score for international students (minimum of 250)
-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MDSS (online): GRE or MAT score, statement of purpose, and three letters of recommendation
-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MS-thesis/non-thesis):
 - * This degree program also offers a Graduate certificate: Official transcript
 - * MS degree: GRE or MAT score, statement of purpose, and three letters of recommendation

Funding

Between 5-7 CCJ and INSS master's students who are eligible to work in the U.S. are selected for part-time paid positions as a TA or RA. Paid assistantships are available for CCJ and INSS students to work on grant-funded research projects through various opportunities at UTEP.

Coursework

The M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degree is a 36-credit on-campus program where classes are held in the evenings. All students in the program are required to take 9 hours of core courses. Following the core, two tracks are available to appeal to students with different educational goals: a professional/non-thesis track and a thesis track. The professional track of the MS-CCJ assists students seeking entrance to or promotion within a justice-related agency to prepare them for administrative and management issues. The thesis track prepares individuals methodologically and statistically to identify problems, apply criminological theory, and develop solutions to crime in their preparation for a Ph.D. program in criminology or criminal justice.

(Continued page 30)

학교소개: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The Master of Science in Intelligence and Security Studies requires 39 credits. All students in the program are required to take 15 hours of core courses. Following the core, two tracks are available to students based on their academic goals: a professional/capstone track and a thesis track. The MS-INSS is for students seeking employment or career advancement with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in the private sector, or with applied research institutions. This graduate program prepares students for a later Ph.D. program in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or criminal justice.

The Master of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 is a 36-credit 100% online program which consists of 12 required courses that are each condensed into 7-week terms. Students take only one course per term to finish in 2 years or can take 2 courses per 7-week term to complete a degree over one year. The curriculum fosters greater cross-cultural competence and an understanding of related U.S. strategic interests and capabilities as they relate to U.S. national and global security.

이상으로 UTEP 의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이나 그 외의 내용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아래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정 (Hyunjung Cheon)
hcheon@utep.edu



회원 인사 및 연구 활동

회원 소식

(1) Employment

노명훈 (Myunghoon Roh), 2021년 Salve Regina University 조교수로 임용.

Advertisement: SCJA

**The Southern Criminal Justice Association 2022 Annual Meeting will be hosted by the
Renaissance Asheville Hotel
September 12-16, 2022**



“Going Back to Our Roots: A Celebration of 50 Years of SCJA”

Cathy Marcum, President

Appalachian State University

Kent Kerley, Program Chair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We’re headed to Asheville, NC in 2022 to celebrate 50 amazing years of the Southern Criminal Justice Association. In addition to the stellar panels and fellowship that have made our conference the top regional criminology conference, we’ve planned a special emphasis on why SCJA was initially formed and our continued focus on building young scholars. The Renaissance Asheville is a beautiful hotel nestled in the Blue Ridge Mountains and directly in downtown Asheville. This prime location gives conference attendees walking access to delicious restaurants, breweries, outdoor activities, and eclectic entertainment. A short car ride will take you to the gorgeous grounds of the Biltmore Estate or on a hiking adventure. The deadline for proposals is July 15, 2022. Please email questions to Dr. Kent Kerley at kent.kerley@uta.edu.

공지사항: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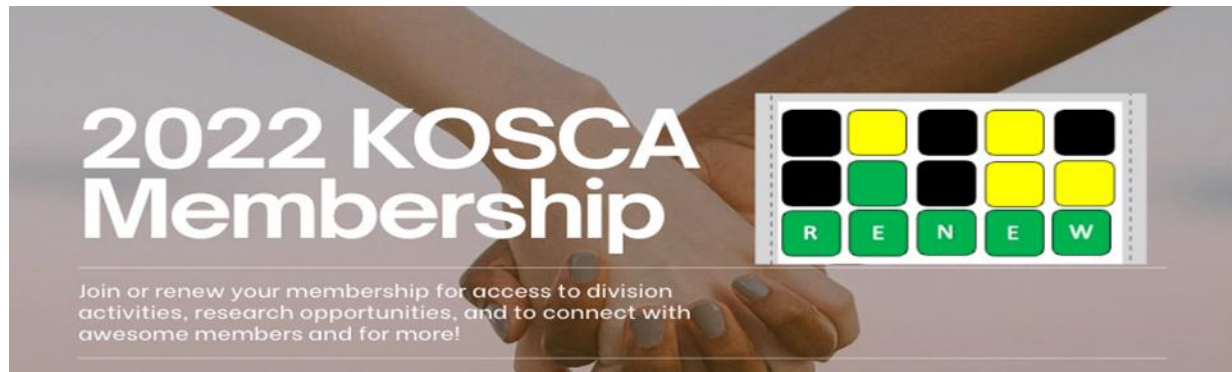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과 미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 연구에 관심 있는 모든 범죄학자는 KOSCA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입회원서([양식다운로드](#)-클릭)를 작성하셔서 Membership Committee Chair (박인선교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회원께서는 신상이 변경된 경우에만 (영전 및 교수직 임용 등) 회원신청서를 재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입회원서를 보내실 때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원에서 입회원서와 C.V.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박인선 교수 (University of Akron) ipark@uakron.edu



공지사항: KOSCA Membership 안내



2022년부터 멤버십 기간이 calendar year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홈페이지 멤버십 페이지에서 "Join KOSCA"를 클릭하신 후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KOSCA Membership

Registration

Membership Registration

- ✓ New Registration
- Renew Membership
- Information Update

기존 회원 분들도 소속/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Information update" 를 선택하여 최신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학회 소식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회비 납부는 온라인 결제 Zelle - kosca2020@gmail.com / Paypal - chunrye@gmail.com 또는 check/money order 발송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Active Member (정회원) - \$20

Student Member (학생회원) - \$10

Lifetime Member (평생회원) - \$300

** Paypal이나 신용카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되도록이면 Zelle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Check/money order 보내실 곳:

Dr. Chunrye Kim (Treasurer) ckim@sju.edu
 Sociology and Criminal Justice Department
 Saint Joseph's University
 5600 City Ave. Post Hall 133
 Philadelphia, PA 19131

공지사항: KOSCA 공식 Facebook page 안내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KOSCA 공식 Facebook page 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페이지 주소로 바로 접속하시거나 (<https://www.facebook.com/KOSCA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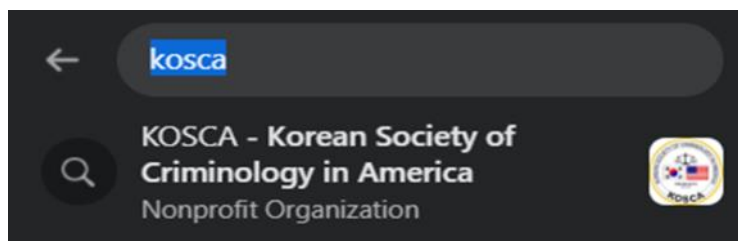
Google 검색:

<https://www.facebook.com> > ... > Nonprofit Organization

KOSCA -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 - Facebook

Call for papers! Criminology & Public Policy is looking for research around the topic of "Place, Crime, and Race" for a 2022 Special Issue.

또는 Facebook 내에서 KOSCA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vent, Publication, Awards 등 학회 및 회원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Follow" 하시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홍보/공유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시면 메신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Newsletter 회원투고 안내

뉴스레터 편집위원회에서는 ‘*The Korean Criminologist*’ 을 위해 회원님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글은 회원 상호간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형식 및 내용

특정한 형식 혹은 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편하게 작성 (예: 수필형식, 사진 첨부 가능)

- 최근 본인의 근황 (수기), 학교 및 학과 소개, KOSCA 발전을 위한 제언
- 최근 연구결과물의 소개, 교수법 소개, 직장 구하는 방법 및 인터뷰 요령 등

2. 원고 접수 기간 및 보내실 곳

- 원고 접수 기간 : 상시
- 보내실 곳: 뉴스레터 편집위원장 이희욱 교수 (E-mail: heeukslee@weber.edu)

3. 회원 인사 및 연구 동정 소식

- 영전, 승진 등의 인사이동을 하시게 되거나, 교내 및 외부 grant 기회, 각종 시상, 책출판을 하신 회원님께서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회원 인사 동정'을 통해 함께 축하 드립니다.

형식: (1) Grant - 연구기간, PI 또는 Co-PI 유무, Grant 지원 Institution, Title, Funding Amount
 (2) 시상 또는 Nomination 등 - 일자, 내용, Agency
 (3) 저자, 책제목, 출판일, 출판사 (APA Style)
 (4) 초청강연—발표자, 제목, 발표일자, 발표장소

참조: 회원 영전과 인사이동에 관한 소식은 Membership Committee Chair, 박인선 교수 (Email: ipark@uakron.edu)에게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님의 책 홍보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간략한 책 소개와 표지사진을 첨부하여 뉴스레터 편집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The Korean Criminologist

Official Newsletter of th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Vol. 12, No. 1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870 Broadway Street

Lowell, MA 01854

ISSN 2169-9924 (Print)

ISSN 2169-9040 (Online)

President: Hyeyoung Lim (임혜영)

E-mail: hyeyoung@uab.edu

Chief Editor: Heeuk Dennis Lee (이희욱)

E-mail: heeuklee@weber.edu

Managing Editor: David Yong Kim (김용)

Email: dyk1@iu.edu

Editorial Team: Jaeseung Lee (이재승: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Youngki Woo (우영기: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Keeyoon Noh (노기윤: Pittsburg State University)

Minju Kim (김민주: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Sinyong Choi (최신용: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